

우리나라 대학생의 창업인식 조사를 통한 창업교육 고도화 방안

송우용* · 권혜진**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의 도전적 창업문화 정착, 대학생의 창업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업 확대에 필요한 창업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의 국가경제적 의의와 함께 대학생의 진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생의 창업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학생의 창업아이템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의 창의성이 뒷받침된 기술기반 창업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 및 대학에서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창업도전의 저변 확대, 시장과 산업 트렌드를 바꿀만큼의 시장 전환적이며, 창조적 파괴가 동반된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H대학교 신입생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생 창업인식을 분석하고 대학의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유의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창업교육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생애주기적 진로대안으로서 창업의 의의 인식, 둘째,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셋째, 창업 전문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대학 내외부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여 이론-실무의 우수한 창업 교육자 풀 구성 넷째, 효과적 창업교육 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창업교육 목적의 명확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국내외 우수 창업교육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학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의 모색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창업교육, 창업선호도, 맞춤형 교육, 개인적 성향과 창업인식간 관계

1. 서론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이 2007년 페트로차이나, 엑손모빌, GE, 차이나모바일, 중국공상은행에서 2017년 애플(창업: 1976년), 알파벳(1998년), MS(1975년), 아마존(1994년) 페이스북(2004년) 등 젊은 기업으로 바뀌었다. 또한 인구 850만명의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7,000개 이상의 기술개발 스타트업이 나타나며, 첨단기술종사자수 30만명, 연간 IT스타트업수 600개, 엑셀러레이터 100개 등 전방위적 창업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인텔이 2017년 3월 이스라엘 벤처기업 모빌아이를 17조 9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힌 사실은 우연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강력한 창업 생태계 속에 배태된 것이다. 이 같은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창업 강국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1992년 11.4%에서 2017년 4.5%로 감소했다.

최근 세계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 4차 산업혁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교수, 창업지원단 단장(wysong@hanbat.ac.kr)

** 한밭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창업지원단 선임매니저(hjkwon@hanbat.ac.kr)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경쟁국가와 기업에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혁신을 통해 기존에 존재치 않았던 상품, 시장, 고객을 선점하는 선발자우위(First Mover Advantage)는 더욱 커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기 전에 이미 창업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가의 창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역량 강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각 대학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5% 내외의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경우 대학생들의 창업아이템이 시장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만큼의 창의성이 뒷받침된 기술기반 창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미 국가 및 대학차원에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대학 내 창업문화 확산을 통해 창업 도전의 저변을 확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 있는 젊은이들의 도전 속에서 시장과 산업 트렌드를 바꿀만한 글로벌 수준의 시장전환적, 창조적 파괴가 동반된 창업은 좀처럼 발견되고 있지 않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가 우리의 주 경쟁자인 선진국에 비하여 덜 강건하고, 시장의 변화를 리드하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적 창업기업이 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가? 어느덧 창업이 취업스펙으로 전략하게 되었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창업을 보다 냉철하고, 전략적인 감각으로 대하되 뜨거운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시장성공을 위해 위험을 감내하는 마인드와 역량에서 그 이유를 찾고자하며, 그 해결방법으로서 창업교육의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관련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의 서로 다른 특성과 창업에 대한 인식을 깊이 고민하고, 개인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관행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유효한 창업교육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생들에 대한 창업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사회의 도전적 창업문화를 정착하고, 시장성공을 전제로 한 창업,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창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H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 중 1,0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로설계 및 기업가정신, 창업 인식 및 활동 경험 등 대학생의 창업인식 전반에 걸친 분석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 창업교육 전략의 도출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로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기회인식, 창업자신감, 창업의지, 창업의도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창업교육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II.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교육의 의의와 과제

2.1 창업, 창업교육의 의의 및 문제점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래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등 특성 및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 수단을 지칭하며, 세계 각국을 긴

장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어떠한 용어로 묘사되든 인류는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움 앞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인류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지닌 4차 산업혁명으로 그려질 미래 산업사회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결정된 것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치열한 에너지의 충돌, 누구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질서를 먼저 만들어 가는가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됨에 따라 기존에 존재치 않았던 상품과 서비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과거 시장을 지배하던 수많은 기업, 상품, 일자리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의 원동력은 기술기반의 창업이다. 창업은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일자리, 기업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창업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국가경제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진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창업의 중요성 인식과 더불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창업교육이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창업성공률을 높인다고 믿어지고 있다. 이는 창업교육이 개인의 창업의지를 자극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며(황서연 외 2012), 실제 애리조나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후 창업할 확률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수입도 26%이상 높다는 분석결과도 있다(김선우외, 2014). 이 같은 배경에서 대학에서 창업교육 및 훈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Kuratko, 2005), 정부는 창업교육과 함께 재정적 지원 등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앞 다퉈 소개하고 있다. 대학의 창업교육은 개인의 창업동기를 촉발시키고, 새로운 기술의 발견과 발명을 통한 창업촉진 및 혁신,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주는 창업관련지식의 전달을 통하여 국가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이우진 외, 2013).

창업교육은 단순히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창업교육은 창의성,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등 21세기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창의성 있는 인재를 발굴·육성하는데 효과성을 갖는다. 즉, 창업교육은 잠재적 창업 수요자인 학습자인 대학생들의 진로설계의 대안이 되고, 창업에 필요한 마인드, 지식, 기량의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창업을 발생시키는데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송우용 외, 2016). 이 같은 대학생 창업교육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와 각 대학은 효과적인 창업교육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미흡한 편이며, 유사·중복사업이 추진되고, 실행 주체가 대학에 집중되면서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이 난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비효율을 낳고 있다(허선영 외, 2017). 실제 대학 현장 내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여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창업지원 제도의 효율성 저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김용태, 2016).

또한 이 같은 구조적 문제 이외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문화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피상적인 수준의 창업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학생진로로서 창업은 아직까지만 이야기로 치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의 5% 정도가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극소수의 학생만이 재학 중 창업에 도전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나머지 95%는 진로로서 취업에 일차적인 목표를 삼고 있다.

창업교육 혹은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창업교육은 기본

적으로 창업실행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가정신의 배양을 통하여 생애기간 중 도전적인 삶의 방식을 체화하는데 효과적(Testa 등, 2015)인 수단이다. 따라서 창업을 본인의 진로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창업교육의 교육적 가치는 여전히 크기 때문에 대학의 창업교육은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전체에 대한 창업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 교육현장에서 분명 창업의 중요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인정되고 있으며,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분주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교육의 범용적 교육의미가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생들을 위협으로 내몬다는 질책어린 평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문제점은 많은 대학이 대학생에 대한 보편적 형태의 기업정신교육 효과를 미쳐 인지하지 못하여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창업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표 1>은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유형에 따라 필요한 창업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이들에 대한 창업교육은 차별화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표 1> 창업에 대한 태도유형 및 필요 창업 교육내용

구분	비율	특성	필요 창업 교육내용
적극적 창업 실행형	5%	창업동아리 및 다양한 창업관련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재학중 창업을 실행하며, 성공적 실패를 통한 학습기회를 얻으며, 사업가로서 진로를 설계함	창업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창업실행 과정의 아이템발굴, 사업모델 세련화, 외부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기술사업화 위한 전문멘토링 등이 필요
단기적 창업 계획형		창업에 관심을 갖고 창업교육 및 관련활동에 참여하며, 졸업 후 창업준비 및 취업등을 통해 창업역량을 키우고 환경적 여건이 성숙될 때 창업에 도전함	창업에 필요한 관련지식과 역량을 취업 및 사전학습으로 축적하며, 창업단계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아이템개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환경분석 방법, 자본조달 방법 등 학습 필요
생애 주기 탐색형	95%	사회적 변화, 평생고용 기대 어려움, 백세수명시대 막연히 창업이 필요한 상황이 다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창업관련 정보를 눈여겨 봄	기업가정신교육 및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업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아이템발굴, 창업환경분석 등의 방법 교육함
창업 회피형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이 없어 특별한 창업관련 활동과 정보수집을 하지 않으며, 직장 퇴직 후 연금 및 저축 생활 및 생계형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음	기업가정신교육을 통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도전적이고 창의적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하며,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교육함

자료 : 송우용 외(2017a), p.116

2.2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행되고 있는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구분 기준으로 학점을 제시한 것은 대학생들의 교육 관심도와 몰입도의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이다.

<표 2> 창업교육 및 창업활동의 유형

학점부여 특성	교육형태	창업교육 및 활동 내용
학점, 학기형	이론중심 강좌	- 교양교과목, 전공교과목
	실습형 강좌	- 캡스톤디자인, 현장인턴십
비학점, 단기형	이론 및 실습	- 교육형 : 창업특강,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 활동형 : 창업동아리, 현장견학 - 지도형 : 멘토링, 코칭 - 개발형 :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시뮬레이션 - 실행형 : 지식재산권 확보, 시제품 제작, 창업실행

교육내용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창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속에서 활성화된 것은 교육부 LINC사업의 일환으로 창업교육센터의 설립 및 중소기업청 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이 이루어진 201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창업관련 개설강좌 수는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이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강좌는 주로 이론형이 많으며, 전공과목에서 이론형 3,866개, 실습형 1,421개로 나타났다. 학교당 평균 창업강좌 수는 32개로 전년 대비 2배(2015년 16개) 늘었으며, 평균 수강생은 1,168명(2015년 1,096명)에 달하고 있다.

<표 3> 창업강좌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양과목				전공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2013	1,722	112,586	1,317	9,078	2,577	87,527	958	22,898
2014	2,081	128,538	245	10,368	1,768	60,933	768	21,107
2015	1,409	168,840	233	10,679	1,833	83,302	880	31,064
2016	4,341	206,191	698	25,367	3,866	113,156	1,421	37,307

자료: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의 창업 교육 지원 현황(2013~2016)
 주1) 2016년 기준 총 327개교 : 대학교 181개, 전문대(2년) 68개, 전문대(3년) 59개, 전문대(4년) 4개, 각종대학 1개, 기능대학 1개, 사이버대학 11개, 산업대학 2개

우리나라 대학생의 창업은 창업자수, 기업 수, 매출액 기준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 이르러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창업동아리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학교당 평균 창업동아리 수 17.2개, 141명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표 4> 학생 창업활동 현황(2014~2017) (단위: 명, 백만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창업성과	창업자 수	301	296	948	1,335
	기업 수	294	277	765	1,191
	고용인원 수	303	323	490	542
	매출액	7,143	5,244	8,310	14,355
창업동아리	동아리 수	3,750	4,408	5,621	-
	이수자 수	37,691	38,800	45,959	-

Ⅲ. 대학생 창업인식 조사·분석

3.1 조사 설계

3.1.1 표본의 구성

대학생 창업 인식조사 대상은 2017년 한밭대학교 신입생으로서 2017년 1월에 실시된 오리엔테이션 참가자중 1,092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앞서 창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학생 진로 대안으로서의 의의, 대학차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제도를 설명하여 창업의 개념과 의의를 사전 학습함으로써 설문응답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자 643명(58.9%), 여자 449명(41.1%)이며, 학습형태는 주간 911명(83.7%), 야간 177명(16.3%)이다. 전공계열은 공학계열 658명(60.3%), 디자인계열 84명(7.7%), 인문사회계열 136명(12.5%), 경상계열 214명(19.6%)으로 구성되었다.

3.1.2 설문의 구성

신입생에 대한 창업인식도 조사는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추적조사를 통하여 학생의 경력 관리와 함께 진로설계에 필요한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설문은 진로설계 및 기업가정신, 창업 인식 및 활동경험의 두 파트로 구분된다. 진로설계는 졸업 후의 진로계획, 기업가정신은 개인적 성향(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마인드(창업기회인식, 창업자신감, 창업의지)로 구성된다. 창업인식 및 활동경험은 창업 관심도, 창업에 대한 이미지, 졸업 후 진로로써 취업과 창업의 상대 선호도, 창업적합 능력 및 창업에 대한 태도유형, 창업에 필요한 역량, 창업동기유발요인, 창업에 대한 관심 이유, 희망 창업분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2. 조사 분석의 결과

3.2.1 희망진로 및 창업에 대한 관심도, 선호도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대학생 가운데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율은 5%내외로 보고 있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82%학생이 졸업 후 진로로써 취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을 희망진로로 생각하는 학생비율은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5.0%에 이르고 있다. <표 6>은 취업 1로부터 창업 10까지의 졸업 후 진로의 상대적 선호도를 2016년 4-5월 3,4학년 재학생 대상 1박 2일 창업캠프 후 설문과 2017년 2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4점 이하는 창업보다는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두 집단 모두 평균 3점대로 나타나 취업 선호도가 뚜렷이 높았다. 또한 창업선호도는 두 집단 모두 12% 수준으로 유사하였으며, 취업선호도는 3,4학년이 72.6%로 66.9%를 기록한 신입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 졸업에 가까울수록 진로에 대한 현실적 압박이 취업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게 한다.
- 두 집단 간에는 3-4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그 기간 동안 창업에 대한 친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

<표 5> 계열별 희망진로

진로	전체표본		공학	디자인	인문	경상
	빈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취업	881	82.0	84.6	88.0	76.9	74.5
창업	46	4.3	3.7	4.8	1.5	7.7
진학	55	5.1	5.5	1.2	5.4	5.3
기타	75	7.0	4.4	6.0	16.2	10.6
취+창업	7	0.7	0.8	0.0	0.0	1.0
취+진학	11	1.0	1.4	0.0	0.0	1.0
총계	1,075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6> 취업과 창업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신입생, 재학생 비교)

선호도	2016년 4-5월 3-4학년			2017년 3월 신입생		
	빈도	비율(%)	진로성향	빈도	비율(%)	진로성향
1	178	25.7	취업선호 503명 (72.6%)	173	16.0	취업선호 722명 (66.9%)
2	115	16.6		117	10.8	
3	125	18.0		249	23.1	
4	85	12.3		183	17.0	
5	44	6.3	진로중립 107명 (15.4%)	121	11.2	진로중립 223명 (20.7%)
6	63	9.1		102	9.5	
7	22	3.2	창업선호 83명 (12.0%)	55	5.1	창업선호 134명 (12.4%)
8	26	3.8		48	4.4	
9	16	2.3		16	1.5	
10	19	2.7		15	1.4	
관찰 수	693	100.0		1,079	100.0	
평균	전체(3.48) 공학(3.42) 디자인(3.42) 인문(3.80) 경 상(4.41)			전체(3.86) 공학(3.85) 디자인(4.02) 인문(3.71) 경 상(3.91)		

주) 취업선호 1, 창업선호 10의 양극단 사이의 선호도

창업에 대한 관심도 분석결과 응답자의 25.5%가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창업을 희망 진로로 삼는 경우 5%의 5배에 달한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창업관심도의 전체평균은 2.76으로 보통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며, 계열별로 볼 때 경상계열이 상대적으로 창업관심도가 높고 인문사회계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창업에 대한 관심도

창업관심도	빈도	비율	계열별 평균 전체 : 2.76 공학 : 2.79 디자인 : 2.81 인문사회 : 2.51 경상 : 2.88 F: 3.32, P값: 0.019
전혀 관심 없다	146	13.5	
관심 없다	293	27.1	
보통이다	366	33.9	
관심 있다	227	21.0	
매우 관심이 있다	49	4.5	
총계	1,081	100.0	

창업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평균 3.27로 창업에 대한 관심도 2.76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관심도는 본인의 행동의사가 어느 정도 투사된 인식이며, 이미지는 일반적 본인과의 연관보다는 객관적인 사회적 판단기준 속에서의 인식이라는 점에서 그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계열별로 창업 이미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창업에 대한 이미지

창업이미지	빈도	비율	계열별 평균
매우 부정적이다	29	2.7	전 체 : 3.27 공 학 : 3.27 디 자 인 : 3.27 인문사회 : 3.18 경 상 : 3.37 F: 1.38, P값: 0.245
부정적이다	136	12.6	
보통이다	485	44.9	
긍정적이다	364	33.7	
매우 긍정적이다	65	6.0	
총계	1,079	100.0	

3.2.2 창업 태도유형 및 창업 희망분야

<표 9>는 다음의 태도유형에 가운데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조사한 결과이다.

- 재학 중 창업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창업을 실행할 계획
- 창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며 졸업 후 여건이 될 때 창업에 도전할 계획
- 창업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창업관련 정보를 눈여겨 볼 계획
-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퇴직 후 생계형 창업을 고려해 볼 계획

분석결과 재학 중 적극적인 창업노력과 실행을 하고자 하는 비율은 6.6%로 디자인계열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는 반대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소극적 창업의식을 갖는 경우가 32.2%이며, 창업이 필요한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정보활동을 하겠다는 경우가 가장 많은 33.9%를 점하고 있다.

<표 9> 전공계열과 창업태도 유형간 교차분석 (전체표본)

계열	창업에 대한 태도 유형				총계
	재학 중 창업	졸업 후 여건 될 때	창업관련 정보 눈여겨 봄	퇴직 후 생계형 창업고려	
공학계열	42	182	211	194	629
	6.7%	28.9%	33.5%	30.8%	
디자인계열	8	18	33	19	78
	10.3%	23.1%	42.3%	24.4%	
인문사회계열	6	29	45	52	132
	4.5%	22.0%	34.1%	39.4%	
경상계열	13	54	63	70	200
	6.5%	27.0%	31.5%	35.0%	
총 계	69	283	352	335	1,039
	6.6%	27.2%	33.9%	32.2%	

창업관심군(창업 관심도에서 4점과 5점에 응답한 학생)의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 유형이 전체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표 10> 전공계열과 창업태도 유형간 교차분석 (창업 관심군)

계열	창업에 대한 태도 유형				총계
	재학 중 창업	졸업 후 여건 될 때	창업관련 정보 눈여겨 봄	퇴직 후 생계형 창업고려	
공학계열	22	82	41	14	159
	13.8%	51.6%	25.8%	8.8%	
디자인계열	4	6	11	0	21
	19.0%	28.6%	52.4%	0.0%	
인문사회계열	2	8	13	3	26
	7.7%	30.8%	50.0%	11.5%	
경상계열	9	21	26	2	58
	15.5%	36.2%	44.8%	3.4%	
총 계	37	117	91	19	264
	14.0%	44.3%	34.5%	7.2%	100.0%

창업을 할 경우 어떤 분야로 할지에 대한 질문에 70.1%의 학생이 기술 및 지식창업을 선호했다. 계열별로 볼 때 공학계열은 기술창업, 디자인/인문사회/경상계열 학생들은 지식창업을 선호하고 있다.

<표 11> 전공계열과 희망 창업분야 교차분석

계열	희망 창업분야				총계
	기술창업	지식창업	일반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공학계열	268	186	96	75	625
	42.9%	29.8%	15.4%	12.0%	
디자인계열	25	38	9	8	80
	31.3%	47.5%	11.3%	10.0%	
인문사회계열	6	75	27	21	129
	4.7%	58.1%	20.9%	16.3%	
경상계열	20	99	44	26	189
	10.6%	52.4%	23.3%	13.8%	
총 계	319	398	176	130	1,023
	31.2%	38.9%	17.2%	12.7%	100.0%

- 기술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번역/웹디자인 프리랜서, 오락/문화/운동 서비스업, 교육
-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인터넷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창업
- 프랜차이즈 창업 : 치킨, 피자, 분식 등 프랜차이즈

창업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창의도전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사업아이템 발굴 능력, 사업관련 전문기술 등 창업 초기단계에 필요한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

<표 12> 창업자에게 필요한 역량

창업자 필요 역량	전체표본		창업관심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창의도전정신	566	53.8	149	55.8
사업아이템 발굴능력	298	28.3	64	24.0
사업관련 전문기술	119	11.3	35	13.1
논리적 사고 및 학습능력	24	2.3	5	1.9
네트워크 확보능력	35	3.3	11	4.1
조직관리 능력	10	1.0	3	1.1
총 계	1,052	100.0	267	100.0

창업에 대한 관심 이유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음, 취업보다 높은 소득, 나만의 규율 속에서 활동 순으로 꼽고 있으며, 창업관심군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음, 나만의 규율 속에서 활동을 주요 이유로 보고 있다. 이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요즘 대학생들의 특성을 나타내며, 취업난 속의 네거티브 회피적 창업보다는 창업을 통한 적극적인 꿈의 실현과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그 이유

창업관심이유	전체표본		창업관심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음	280	28.5	93	35.0
취업보다 높은 소득	240	24.4	47	17.7
나만의 규율 속에서 활동	221	22.5	84	31.6
취업난이 극심해서	114	11.6	17	6.4
주위사람들의 권유	21	2.1	6	2.3
창업아이템이 있어서	38	3.9	10	3.8
취업불만족 사례를 접해서	48	4.9	6	2.3
대학 및 정부의 창업지원	21	2.1	3	1.1
총 계	983	100.0	266	100.0

설문 전 창업관련 교육을 받은 신입생들에게 창업동기를 유발하고 창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조사한 결과 현장인턴십, 창업프로그램 참여, 창업동아리 활동 등 액티브한 창업활동의 실행에 무게를 두었으며,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표 14> 창업동기 유발 및 창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

창업동기 및 역량강화 요인	전체표본		창업관심 군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장인턴십	298	28.6	80	30.1
창업프로그램 참여	226	21.6	67	25.2
창업동아리 활동	191	18.3	45	16.9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145	13.9	33	12.4
창업 멘토링	98	9.4	21	7.9
창업강좌 수강	87	8.3	20	7.5
총 계	1,045	100.0	266	100.0

3.2.3 집단별 창업선호도, 개인적 성향, 창업마인드 특성분석

기존 연구에서 창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중시되는 개인적 성향(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과 창업마인드(창업기회 인식, 창업자신감, 창업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채택된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

<표 15> 개인적 성향 및 창업마인드 측정을 위한 신뢰성, 타당성 분석

측정개념		측정문항	신뢰성	타당성	
			크롬바 α	eigen value	누적 설명 분산
개인적 성향	혁신성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0.848	2.779	23.2%
		창의성이 뛰어나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새롭고, 창의적 아이디어 생각			
		일을 할 때 독창적, 혁신적 아이디어 찾으려 노력			
	진취성	전통이나 구습에 얽매이는 것을 불필요하다 생각	0.742	1.850	38.6%
		옛 것보다 새 것이 좋으며 새로운 유행 추구			
		보수적인 기질보다 진보적, 개혁적이라고 생각			
	위험 감수성	무슨 일이든 일단 결심이 서면 밀고 나간다	0.668	2.541	59.8%
		해야 할 일이라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행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결정하는 편이다			
		잠재기회 탐색 위해 위험 무릅쓴 공격적 자세 취함			
		위험을 감지하면 극복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창업 마인드	창업 기회 인식	새로운 창업기회를 인식하는데 남다른 센스가 있다	0.872	2.992	23.0%
		경험 없는 분야의 잠재 창업기회를 인식할 수 있다			
		나에게는 유망한 창업기회가 많이 있다			
		창업기회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창업 자신감	창업에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극복할 자신 있다	0.854	3.023	46.3%
		위험한 상황에서 확실한 의사결정 자신이 있다			
		창업을 하면 자금을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			
		창업과정상 문제를 잘 해결할 자신이 있다			
	창업 의지	창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0.892	3.374	72.2%
		창업을 생각하면 설레고 흥분된다			
		창업에 대해 많은 열정을 느끼고 있다			
		사업실패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매력적이다			
	조직 구성원 보다는 리더가 되고 싶다				

창업에 대한 태도(관심도, 이미지, 선호도), 개인적 성향(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 마인드(기회인식, 자신감, 의지) 등 9개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창업관심도가 다른 요소들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성과 위험감수성 역시 다른 변수와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진취성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창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표 16> 창업에 대한 선호도, 개인적 성향 및 창업 마인드 상관분석

측정개념	창업 관심도	창업 이미지	창업 선호도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창업 기회인식	창업 자신감	창업 의지
창업관심도	1								
창업이미지	.487**	1							
창업선호도	.532**	.345**	1						
혁신성	.383**	.222**	.243**	1					
진취성	.176**	.106**	.094**	.333**	1				
위험감수성	.313**	.184**	.142**	.494**	.339**	1			
창업기회인식	.571**	.335**	.354**	.530**	.205**	.445**	1		
창업자신감	.525**	.307**	.339**	.422**	.199**	.479**	.668**	1	
창업의지	.711**	.452**	.473**	.455**	.198**	.408**	.699**	.688**	1

주) **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

응답학생들의 특성으로서 혁신성과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두 3.0점 이상 즉, 보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에 있어서 디자인계열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향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 학생들도 인문사회 및 경상계열 학생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7> 계열별 개인적 성향 및 창업 마인드 평균 비교

구분		계열	N	평균	F (p-value)
개인적 성향	혁신성	공학계열	658	3.3047	9.702 .000
		디자인계열	84	3.4464	
		인문사회계열	135	3.0556	
		경상계열	210	3.0952	
		총계	1087	3.2443	
	진취성	공학계열	657	3.5545	1.923 .124
		디자인계열	84	3.6905	
		인문사회계열	135	3.5062	
		경상계열	209	3.4912	
		총계	1085	3.5469	
	위험감수성	공학계열	657	3.4375	.654 .581
		디자인계열	84	3.4357	
		인문사회계열	135	3.3704	
		경상계열	209	3.3983	
		총계	1085	3.4215	
창업 마인드	창업기회 인식	공학계열	655	2.8182	2.062 .104
		디자인계열	84	2.7609	
		인문사회계열	135	2.6500	
		경상계열	209	2.7588	
		총계	1083	2.7813	
	창업자신감	공학계열	654	3.1895	5.254 .001
		디자인계열	84	2.8839	
		인문사회계열	135	3.0389	
		경상계열	208	3.2091	
		총계	1081	3.1507	
	창업의지	공학계열	652	2.9659	2.193 .087
		디자인계열	84	2.8750	
		인문사회계열	135	2.7722	
		경상계열	208	2.9904	
		총계	1079	2.9393	

창업 마인드의 3가지 구성요인 가운데 창업자신감이 총 평균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의지는 2.93, 창업기회 인식은 2.75로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계열별 평균은 창업자신감은 경상계열 학생들이 3.2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계열이 2.88로 가장 낮았다. 창업의지는 경상계열과 공학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창업마인드는 경상계열 학생들이 가장 높았으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8> 창업관심도에 따른 개인적 성향, 창업 마인드 및 창업선호도 평균비교

구 분		창업관심도	N	평균	t(p-value)
개인적 성향	혁신성	관심 없음	439	2.9687	11.594 .000
		관심 있음	276	3.6105	
	진취성	관심 없음	439	3.4571	4.974 .000
		관심 있음	276	3.7271	
	위험감수성	관심 없음	439	3.2593	9.589 .000
		관심 있음	276	3.6822	
창업 마인드	창업기회인식	관심 없음	439	2.3557	19.189 .000
		관심 있음	275	3.3321	
	창업자신감	관심 없음	439	2.7491	17.876
		관심 있음	275	3.6994	
	창업의지	관심 없음	438	2.3231	27.979 .000
		관심 있음	275	3.8291	
창업 선호도	창업관심도	관심 없음	439	1.667	77.920 .000
		관심 있음	276	4.178	
	창업이미지	관심 없음	438	2.890	15.959 .000
		관심 있음	274	3.880	
	창업선호도	관심 없음	439	2.752	16.911 .000
		관심 있음	275	5.458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군과 낮은 학생군의 두 집단이 개인적 성향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창업마인드를 구성하는 변수로 창업기회인식, 창업자신감, 창업의지 역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창업선호도 역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학생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 하는 결과이다.

<표 19>는 학비의 부모의존도에 따른 개인적 성향, 창업 마인드, 창업선호도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변수에서 독립형이 의존형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진취성, 창업기회인식, 창업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에 대한 학비의존도가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업자신감, 창업의지, 창업관심도 및 창업 선호도와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학비의존도는 독립성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독립성의 앞의 각 변수들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학비의존도가 경제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과 자발적 독립의사로 인한 것인지는 구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표 19> 학비의존도에 따른 창업에 대한 태도, 개인적 성향 및 창업 마인드간 평균비교

구분	학비의존도	N	평균	t(p-value)
혁신성	독립형	112	3.3817	2.039 .042
	의존형	879	3.2298	
진취성	독립형	111	3.5976	.806 .420
	의존형	879	3.5423	
위험감수성	독립형	111	3.6221	3.808 .000
	의존형	879	3.4014	
창업기회인식	독립형	111	2.8881	1.627 .104
	의존형	877	2.7669	
창업자신감	독립형	111	3.3221	2.312 .022
	의존형	875	3.1227	
창업의지	독립형	111	3.1441	2.571 .010
	의존형	873	2.9135	
창업관심도	독립형	111	3.000	2.541 .011
	의존형	875	2.727	
창업이미지	독립형	111	3.306	.270 .787
	의존형	873	3.283	
창업선호도	독립형	110	4.227	1.934 .053
	의존형	875	3.809	

주) 독립형은 학비의 부모 의존도가 20% 이하, 의존형은 80% 이상을 의미함

IV.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 방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창업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구성원은 적지 않으며, 창업교육은 제한된 대상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창업교육은 관련제도, 목적, 교육대상, 실행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가 당면한 급격한 변화의 대응으로서 창업의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특히 창업교육이 피교육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창업 및 진로 인식의 차이점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기업가정신의 고취, 창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 창업교육이 추구해야 할 성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창업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창업의 생애주기적 진로대안으로서의 의의에 대한 인식

4.1.1 창업의 의의와 대학생 진로대안으로서의 가치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장에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학생의 진로설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실행에 필요한 역량을 계발시킬 만큼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천될 정도의 깊이 있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창업교육은 구호로만 실천되지 않으며, 조직적 관심 속에서 여러 주체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과 프

로그래미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챔피언들의 분투와 노력의 결과 외형적 열개는 갖추었으나 많은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는 미약하고, 그 결과 극소수의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같은 추세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적 경제 활력을 위해서 또한 대학생 개개인의 진로설계에 있어서 창업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장기 성장지체에 빠져있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하여 4차 산업혁명 시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총량적 혁신역량의 확장성에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거대 시스템으로서 대기업의 혁신능력은 중소기업 혹은 개인이 가진 것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은 사회시스템 속 다양한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원천으로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배태된다는 점에서 창업은 국가혁신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최근 산업별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무력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젊은 신생기업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사회가 창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또한 창업은 대학생의 생애주기적 진로로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취업의 대안적 의미를 가진다. 평생직장 개념이 무색하게 된 지 오래이며, 100세 수명시대 평생에 걸쳐 자의적 혹은 창업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우선 생애주기적 진로 대안으로서 창업의 의미를 인지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4.1.2 창업의 기회와 위험에 관한 객관적 학습을 통한 진로대안으로서의 관심도 제고

앞 절의 대학생 창업인식 조사에서 신입생에 비해 3-4학년 재학생의 창업선호도가 낮은 것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진로로써 취업과 창업의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즉, 취업난 속에서도 취업은 창업에 비해 용이한 도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아이템, 소요자본, 상품화, 생산, 판매 등 넘어야 할 산과 도전이 가득하다는 점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재학 중 창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은 너무나 먼 이야기이다. 따라서 창업의 의의와 잠재적 위험, 실행을 위한 창업프로세스, 단계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 필요한 자원 및 확보를 위한 내외부적 원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개인의 적성과 진로계획 및 여건에 따라 창업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와 지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친밀도와 자신감이 형성되고, 오랜 기간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과 시장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적절한 시점에 창업 착수 시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창업을 꺼리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창업 개시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의 부족 등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고, 면밀히 상황을 분석하면서 충분한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전반을 이해하고, 창업단계별로 발생하는 과제를 혼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역, 사회로부터의 관심과 조력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앞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인식은 대학생 별로 전공, 개인적 성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창업관심도는 본인과 창업과의 관련성 속에서 창업에 대한 마음의 끌림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창업 이미지는 본인과는 관련 없이 사회적 시스템 속

에서 창업이 갖는 특성에 대한 관찰자적 판단이다. 분석결과에서 창업이미지는 긍정적인 값(3.27)을 기록하였으나 창업관심은 이에 못 미치는 값(2.76)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두 값의 격차를 어떻게 줄이는 것인가에 관한 답이 오늘날 대학에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심리적 배경까지 세심하게 고려된 효과적 창업 교육 방안의 도출이 된다. 즉, 객관적 관점에서 창업 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본인의 관심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창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난 관찰자로서의 대학생이 많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즉, 이해는 앞으로부터 시작되며, 이해를 통해 관심이 나타나고, 관심을 통해 선호하게 되는 인지적 상승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창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창업의 의의, 잠재적 위험, 실행프로세스 등에 대한 객관적 내용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4.2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진로로서 창업 선호도와 창업에 대한 태도, 창업 마인드는 개인적 성향으로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독립성 등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전공에 따라서도 기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창업 관심도에 따라 개인 성향, 창업이미지, 창업선호도를 구성하는 9개 변수 모두에 대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교육에서 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로서 창업의 선호도를 높이고, 재학 중 혹은 졸업 후의 창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앞서 창업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회와 위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창업관심도는 높일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강조할 점은 개인적 성향에 관한 객관적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교육 혹은 학생의 진로로서 창업에 도전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점이다. 기존 국내의 모든 대학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심리(MBTI 성격유형검사, NEO 성인 성격검사, TCI 기질 및 성격검사, MMPI-2 다면적인성검사, 표준성격진단검사, 에니어그램) 및 적성검사(Holland 적성탐색검사, U&I 학습유형검사, U&I 진로탐색검사, MLST 학습전략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창업 적성검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은 취업에 비하여 스스로 사업을 개척해 가는 험난한 과정으로써 본인의 적성과 마인드가 창업에 부합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사업 추진방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위해 창업적성검사를 포함한 직업적성검사 및 성격유형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진로지도의 창업관련 효과성을 높이고,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창업적성검사는 워크넷(www.work.go.kr), 온라인경력개발센터(www.dream.go.kr) 등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검사하거나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검사를 활용하면 된다. 대학은 학생이 희망하는 창업관련 진로계획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때 진로로서의 창업희망, 전공 등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 면에서 차별적 창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학생들의 창업교육 수요를 명확히 인식하고, 창업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학 중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졸업 후 일정기간 후 창업을 희망

하는 경우와 같이 진로계획에 따라 창업교육의 수요는 달라진다. 창업희망 업종 및 아이টে에 따라 필요한 교육내용이 동일할 수 없으며, 공학, 인문, 경상 등 전공에 따라 학과별 커리큘럼 또한 다르기 때문에 창업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재학 중인 소속학과에 따라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송우용 등, 2017b).

대학생의 전공에 따라 창업관련 선호도, 태도 및 활동에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 기존의 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이 같은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전공별 학문의 특성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전공별 교육과정에서 창업관련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교육은 전공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전공계열별로 창업에 대한 태도와 활동의 몰입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과대학 및 계열별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을 달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조사 결과 공학계열은 기술창업, 디자인, 인문사회 및 경상계열 학생들은 지식창업을 선호한다는 점에서도 계열별 창업교육 내용에 차이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상계열 학생들의 창업동기가 높은 편이며, 이는 창업관련 교육을 전공과 관련하여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공별 창업교육을 달리해야 하는 또 다른 예로 학문분야별 사고 및 행동특성과 관련하여 공대생은 분석적, 논리적, 계량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조적, 루틴함을 선호한다. 이는 학문적 성격에 따른 교육의 결과로 학습되는 것으로써 공학교육은 적응적 사고를 강조하기 때문에 공학도는 자연히 루틴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학습되었다. 따라서 혁신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찾도록 동기부여 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창업자는 고객의 요구와 시장 수요에 반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에 구애되지 않는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며(송우용 외, 2016)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4.3 창업 및 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네트워크 기반 이론-창업실무 교육자 풀 구축

창업분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자는 성공적 창업교육을 위한 핵심적 요인이다. 기존 연구에서 교육자는 창업교육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Seikkula Leino et al., 2010). 특히 대학 창업교육은 사회 진출을 목전에 둔 성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창업의 실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자의 교수능력과 함께 창업에 대한 실무경험과 견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창업교육을 담당할 인력이 질적·양적인 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의 바람직한 창업형태는 기술창업 혹은 지식창업 등 고부가가치형의 기술기반 창업이라 할 수 있는데 기술개발, 사업화, 창업절차의 진행,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인력 풀을 대학 단독의 고정신분 형태로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에서 창업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원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창업교육을 담당할 교원들의 양성이 시급하다. 창업 교육자의 자기 효능감은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하는데 중요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은 창업 혹은 교육에 대한 제한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Barbosa, Gerhardt & Kickul, 2007).

따라서 우수한 창업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를 내

부 교육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교육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에는 정년트랙으로 학과별, 교양담당 전임교수, 산학협력 중점교수 비정년 트랙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의전담교수 등 다양한 신분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창업의 실행은 기업가정신, 아이템 발굴, 창업, 자본조달, 마케팅 등 활동 별로 난이도와 전문성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별 인적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학과에서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술기반형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원천인 전임교수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교수들의 창업관련 교육 및 활동이 교수의 개인적 목표, 성취와 동기화되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창업이 중요하니 참여하라는 일방향적 외침보다는 학생,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창업관련 활동이 스스로가 추구하는 성취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타 대학, 연구소, 기업체, VC, 엔젤, 액셀러레이터 등 국가 창업생태계 내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양질의 교육실행을 위한 교수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내 어떤 대학도 창업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보유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외부의 자원, 인력으로부터의 조력과 협업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학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업교육 전문 인력을 내외부의 풀에서 충당해야 한다.

또한 창업교육은 교양 및 전공교과의 학기형(캡스톤디자인, 현장인턴십 포함)과 창업동아리, 창업특강, 창업캠프, 현장견학,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단기형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각 과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를 단독 혹은 팀의 형태로 적의 구성한다.

특히 창업교육은 피교육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밀착형 교육지도가 필요한데 학내 교수 및 창업자문 인력, 외부 기업 및 창업전문가 그룹의 멘토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아이템 발굴,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개념설계, 시제품 제작, 시장출시를 위한 제반 활동 등 창업의 각 단계별로 많은 장애요인에 존재하며, 이에 대한 학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에 기반한 문제점의 예측과 적절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 창업전문 멘토그룹을 구성하여 사전·사후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화를 실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참가한다는 점에서 동아리 지도교수가 멘토 혹은 적합한 전문가와의 연계를 조력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수 있다.

4.4. 효과적인 창업교육 전략 및 프로그램의 개발

4.4.1 대학생의 창업태도에 대한 인식과 이에 기초한 창업교육 목적의 명확화

교육목적을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효과의 인식방법이 달라진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는 많은 학생이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적 가치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희망진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창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비율은 5%를 넘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의 창업 혹은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5%의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95%의 재학생에게

어떠한 창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은 창업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에 대한 적응성이 가장 크지만 기업가정신은 도전적인 삶의 방식을 제화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창업을 본인의 진로로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Testa &Frascheri(2015)는 창업교육이 갖는 효과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과 태도 창출, 업무와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가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창업지식을 얻고 학교와 사업세계를 연계하는 것, 창의성과 자율성 등과 같은 기업가적 특성이나 자질을 계발시키는 것, 사업관리와 연관이 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창업교육을 통해 얻는 창업관련 지식과 정보는 창업능력 및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여 창업성공률을 향상 시킨다는 점에서(송원근, 2014) 창업교육의 내용에는 창업단계별로 발생하는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설계시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외부의 창업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창업활동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담아야 한다. 특히 대학은 창업의사와 관계없이 대학들에 대한 광범위한 창업교육이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활력을 제고시키는 투자이자 인프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창업교육의 목적을 다양하게 인식하기하는 것이야 말로 서로 다른 창업 태도를 갖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출발이 된다. 즉, 창업교육은 창업을 시작하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되며(Testa and Frasccheri, 2015), 덴마크 공대를 비롯한 미국 등에서도 창업을 직업선택의 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업가정신을 교육할 뿐 창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송원근, 2014).

4.4.2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적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국내외 우수 콘텐츠 활용

대학 창업교육은 첫째, 급변하는 산업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갖추어야 하는 도전적 기업가정신의 함양 둘째, 창업 단계별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강화 및 방법의 제시 등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즉,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실행에의 도움이라는 실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과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대학이 기업가정신과 창업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모두 개발·운영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학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내외의 우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개방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창업선진 국가 및 기관에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행을 위한 다양한 고품질 교육 콘텐츠가 사이버강좌의 형태로 개발되어 있어 품질과 함께 높은 접근성이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 창업의 바람직한 모습은 취업 등 적절한 진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내몰리는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술형 창업으로서 글로벌한 차원의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 외국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을 통해 외국의 세계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기술 등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의 다양한 기관에서 창업관련 정보와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데* 대학 내부의 자원과 역량을 외부의 창업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결합하여 최적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 K-start up 창업에듀에서는 창업준비,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창업, 기술창업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우수한 창업관련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4.4.3 창업역량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 교육방법의 도입

대학에서 실시되는 창업교육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창의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같은 목적은 학생의 창업에 관한 태도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함양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에 초점을 두는 경우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창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개별적 목적과 배경에 따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과 동시에 각 교육 프로그램별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찾는 능동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대학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대학차원에서 창업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교육현장으로 이끄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창업교육은 실천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따라서 지식, 기량, 경험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온·오프라인 상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격상 창업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상황과 현실에 입각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 강좌와 더불어 다양한 주제, 해결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습교육이 유효하며, 직접 창업현장과 창업자를 만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도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창업교육은 전통적인 강의 위주의 진행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획일적, 총론적 형태의 교육이 아닌 전문적, 실무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교육방법의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대상, 교육내용에 따라 강의, 실습, 사례연구, 그룹 토론, 시뮬레이션, 역할 모델, 외부의 창업전문가 특강, 사업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등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도전적 기업가적 마인드로 무장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학이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이 우리의 대학생들 앞에 놓여 있으며, 오랜 성장지체와 대기업 위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인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협임과 동시에 상황적응성 강한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산업사회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도전적인 창의력으로 변화에 적응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다가설 수 있다. 미래의 시장과 산업에 대해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시장과 제품, 서비스를 개념화하는 first mover들에게 그 주도권을 내어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창의역량이 개방형 혁신체제 속에서 배태되고,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 활성화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창업 활성화는 조만간 시장에 진출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창업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업교육현장은 바쁜 마음에 비해 학생들의 수요와 심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며, 일방향적 교육프로그램을 푸시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창업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

는데 첫째, 창업의 생애주기적 진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대학과 학생이 인식해야하며, 둘째, 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창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네트워킹하여 우수한 이론-실무의 창업교육자 풀을 구성해야한다. 넷째, 효과적인 창업교육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창업교육의 목적을 명확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실천적 교육 콘텐츠개발과 함께 국내외의 우수 콘텐츠의 적극 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선우·신은정·김형주·홍성민·박기범·천새롬·고혁진·박진서·신영규(2014). 이공계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 송우용·권혜진·정화영(2016). 대학생 창업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한국중소기업학회, 2016 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송우용·권혜진(2017a). 대학생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송우용·권혜진(2017b). PBL 기반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2017 중소기업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송원근(2014). 대학 창업교육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8(3), 105-131.
- 허선영·장후은·이종호(2017).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산학기술학회, 18(1), 75-84
- Kuratko, D. F.(2005).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9, 577-597.
- Testa, S., & Frasccheri, S.(2015). Learning by failing: What we can learn from un-successful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13), 11-22.